

LG, OLED 기술탈취 사과하라!

SMD, 손해배상에 책임규명 요구 ... 기술유출 피해 수십조원

삼성디스플레이는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 기술을 빼내간 혐의로 검찰이 LG디스플레이의 임직원을 무더기 기소한 것과 관련해 7월16일 LG디스플레이의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수사결과에 대한 입장발표를 통해 “검찰이 LG디스플레이의 전무 등 임원급 3명을 포함해 1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법인 2곳까지 기소한 것은 기술유출 범죄수사로는 사상 최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LG디스플레이가 OLED 기술력 부족을 단기간에 만회하기 위해 고위 경영진을 대동해 삼성의 기술과 핵심인력 탈취를 조직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전사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치밀하게 공모해 저지른 중대범죄”라고 주장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유기물질을 패널의 원하는 위치에 고정시키는 <증착> 기술과 증착된 유기물질을 보호하기 위한 <박막방지> 기술 등 OLED의 핵심기술이 LG디스플레이로 넘어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세계 OLED 시장의 97%를 석권하고 있는 삼성디스플레이가 기술유출로 수십조원의 시장잠식을 우려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가능한 수단을 통해 피해사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LG디스플레이에 대해 관련자 및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인사조치, 부당 스카우트한 인력에 대한 퇴사조치, 최고경영진의 성의있는 사과 등을 요구했다.

한편, LG디스플레이도 7월16일 오후 검찰 수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7월15일 삼성의 OLED 기술을 LG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과 빼돌린 기술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LG디스플레이 임직원 등 11명, LG디스플레이 법인, 협력기업 1곳을 기소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7/16>